

마을, 공부와 삶이 되는 곳

글 · 이희경 문탁네트워크



지난 5월에 열린 어린이날 동네 잔치(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위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부심이 된 곳이다. '난개발'의 대명사이자 365일 공사가 진행되는 곳. 그러나 아직 서울에 비해 공기도 좋고, 동막천과 광교산의 생태계도 살아 있고, 개발 이전의 도농복합지역의 풍모를 부분적이거나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이전부터 고기교회, 목양교회, 동천동성당 등 마을의 종교적 거점이 존재하고 있었고 작은 도서관 운동의 대명사인 <느티나무 도서관>이 동천동 근처인 풍덕천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느티나무 도서관>은 2007년 풍덕천 시대를 마감하고 반듯하고 예쁜 건물을 지어 동천동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마을이 좀 더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은 2004년 '도시형 중등 대안학교'인 <이우학교>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활동적인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이다.

대안학교는 처음부터 '지역'에 대한 구상, 즉 대안학교가 기존의 학교처럼 지역에서 고립된 섬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배려가 존재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신용협동조합, 지역 화폐운동, 학교 도서관 개방과 학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등이 대안학교가 꿈꾼 지역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상이다.

그런데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7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대안학교의 기획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일상을 꾸리고, 좋은 삶을 꿈꾸며,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눈 마을 사람들의 직접적인 삶 - 운동의 결과물이다.

아이를 동네의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공동육아 방과후' (이후 <무지개 방과후교실>)가 만들어졌고, 장을 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울퉁불퉁 공사 길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동네의 안전한 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생협을 이용하고, 그 생협이 자리를 잡기 위해 힘을 보탰다.

대안학교의 학부모가 되면서 마을에 자리를 잡았지만, 마을에서의 삶은 학부모라는 단일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마을의 더 많은 공간과 접속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더 많은 낯선 이웃과 접속하면서 친구가 되는 삶이다.

마을에서 마을을 만든다

마을의 경계가 어디일까? 아니 마을의 물리적 경계를 지을 수 있을까? 전 근대사회는 자연적인 지형이 마을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했다. 산과 강 혹은 개울과 논밭을 경계로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빨래터와 우물터, 대장장이와 방앗간, 의원, 그리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때로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떠돌이까지 한 마을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금, 마을은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아파트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혹은 인사 한마디 없이 수년을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현재 우리네 삶이지 않는가? 반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웃과 인사하고, 자기 아이를 통해 아이 친구의 부모와 만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린 공동의 현안(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 현안, 혹은 내 아이 성적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사교육의 조직화)이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은 어떻게 다시 형성될 수 있을까?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우는 곳 - 4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느티나무 도서관>. 이곳에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을 때뿐 아니라 숨고 싶을 때도 찾아와서 적당한 구석에 앉아 있는 곳이다. 가난한 아이들도 마음을 붙이고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다.

책뿐 아니라 주변의 나무도 돌맹이도 책 못지않은 배움을 주는 곳, <밤토실 도서관>. 이곳은 방과 후의 아이들이 책가방을 던져놓고 놀러 나가는 곳이고, 엄마들이 아이들 책을 함께 읽는 곳이고, 주민들이 작은 독서모임을 여는 곳이다.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의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세



▲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배우는 곳, 느티나무 도서관
▼ 마을의 우물터나 빨래터에 가까운 밤토실 도서관

상의 스승을 모셔다 배움을 청하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밤토실 도서관>은 도서관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의 우물터나 빨래 터에 가깝다.

<무지개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다. '생태 탐사'는 꽃과 풀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지역의 '아줌마'가 이끌고, '자연미술놀이'는 <이야기 숲>이라는 작은 예술교육단체의 교사 한 명이 전담한다. 그 교사가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토요서당'을 열기 위해서 멀리 서울 혜화동에서 선생님을 모셔왔다. 오가는 시간과 드는 품과 비교해 받는 비용은 너무나 작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 그래도 선생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꼬박꼬박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신다. 비록 아이들은 결석을 할망정.

'세계사 교실'에선 최근 부모들의 역사공부모임이 만들어졌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

모들도 역사교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공부모임이 만들어진 경우다. '수학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에게 계산이나 성적을 위한 수학이 아니라 사유로서의 수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은 매년 성남의 지역아동센터인 <함께 여는 청소년학교>의 수학캠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 아이들만 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들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수학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이다.

2006년에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프로젝트인 <마을가족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했고, 이 경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을 지원하는 '점역동아리'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삶, 문탁네트워크

마을 스와라지운동을 펼쳤던 간디의 목표는 단지 제국주의의 지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 스와라지운동은 착취가 없고, 중앙집권화 된 권력이 작아지고, 모든 사람이 어엿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기회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 무지개 방과후교실

간디와 함께 나이탈림이라는 새로운 교육운동을 펼쳤던 비노바 바베 역시 모든 가정이 학교가 되고, 모든 들판이 실험실이 되며,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들에서 일하고 병자를 돌보며 마을을 청소한다는 말을 듣는 '마을'을 꿈꿨다. 하루 종일 배우고, 하루 종일 일하며, 하루 종일 즐기는 것이 가능한 곳! 그곳, 마을은 삶의 문제를 배움의 과제로 껴안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삶과 완전한 지식은 마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문탁네트워크(문탁)'는 그런 완전한 삶과 완전한 지식을 지향하는 곳이다.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화폐교환관계에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삶과의 결별, 삶과 무관한 삶,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아카데미에 갇혀 있는 불완전한 삶에 대한 극복! 어떻게 삶과 삶을 일치시킬 것인가? 공부를 통해 '친구/이웃과 함께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고 단단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0명짜리 반듯한 공간에서, 기획하는 강좌마다 열흘 안에 마감이 되고, 7~8개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주방에서 매일 정갈하고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고, 마을 주민의 땅 한 귀퉁이를 얻어 텃밭농사를 짓는 문탁이 문을 연 지는 불과 넉 달. 그 시작은 우연이었다.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 앞으로 뭘 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낼 지 고민하는 사람, 아이 문제로 심란한 사람 등이 의기투합해 일단 함께 공부를 해보자,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구원해 보자며 한 집의 거실에 모여 세미나를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탁은 출발부터 누

어떻게 삶과 삶을 일치시킬 것인가?

공부를 통해

친구/이웃과 함께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고 단단한 네트워크,

문탁네트워크



각자 하고 싶은 공부와 나누고 싶은 공부로 기획하는 세미나는 자기-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공부법이다.

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기-교육'을 공통의 과제로 삼은 셈이다.

세미나는 '자기-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공부법이다. 각자 하고 싶은 공부와 나누고 싶은 공부로 세미나를 기획한다. 처음엔 '비전 세미나'라는 이름이 붙은 단 하나의 세미나로 출발하였는데, 일리히 읽기를 통해 가치를 제도화하는 근대문명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모스나 플라니 등의 경제인류학 텍스트들을 읽어가면서

화폐와 교환이 아니라, 나눔과 선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고민했다.

이 공부는 더 많은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삶을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욕으로 나아갔다. 공간이 형성된 후 세미나는 회원 각자의 욕구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되어 <논어강독 세미나>, <불교 세미나>, <문학 세미나>, <니체 세미나>, <가족 세미나> 등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세미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접속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삶의 비전을 찾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세미나는, 그러나 일정한 '강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독서모임과는 구별된다. 어려운 책도 읽어야 하고, 글쓰기도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이 없고, 누구든 가르칠 수 있지만 누구든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배치. 그것이 함께하는 '자기-교육'의 과정이고 랑시에르가 말한 바, '해방'의 과정이다.

강좌 역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깨우치기 위해 기획되지 않는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아니다. 강좌를 기획하는 가장 큰 원칙은 문탁 회원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강좌로 조직하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게 있지만 내부의 교사가 없을 때, 외부에서 교사를 초청하는 자기-교육. 그것이 강좌다. 1~2월에는 <논어>를, 3~4월에는 <의역학(醫疫學) 강좌>를 진행했고, 5~6월에는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기초한의학학을 배우는 <삶과 몸>이 진행되고 있다. 7~8월에는 <시경>과 <과학과 근대성>의 두 강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강좌 역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곳이다. 강좌를 통해 새로운 이웃을 만나가는 과정은, 그러나 친구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이 없고,
누구든 가르칠 수 있지만
누구든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없는 배치,
그것이 함께하는 '자기-교육'의 과정**

를 '조직'하는 일은 아니다. 그건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전염'시키는 일이고, 더 좋은 삶에 대한 꿈을 '함께' 꾸는 일이며, 새로 '사귀'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공통의 실천을 모색하는 일이다.

배움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삶이 되는 곳, 마을

최근 문탁네트워크에는 <마을과 경제>라는 세미나가 만들어졌다. 화폐가 아닌 선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대전에서 이미 지역화폐운동을 해 본 사람, 마을에서 <무지개 방과후교실>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지역화폐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 일리히와 선물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삶의 비전을 실험해 보고 싶은 사람, 지역화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함께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낸 성남의 의료생협 활동가와 용인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 주부 활동가, 단지 "세미나 시간이 맞고, 책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참여한다는 마을 주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론적 소양도 살아온 경험도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책을 읽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다. 감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의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문탁 강좌의 가장 큰 원칙은 문탁 회원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을 표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마을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자본이 아니라면, '마을'을 기획하거나 '마을'을 단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면 허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집을 세미나실로 개조하거나, 친구들과 공부모임을 만들거나,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자기 삶을 조금만 바꾸고, 그걸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아마도 마을에서는 매일 매일 새로운 마주침이 일어나고, 그 마주침은 늘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배움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삶이 되는 곳, 마을!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